

'불의 혁명' 이후 기온균형 파괴 급증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빙산이 녹아 10cm에서 최대 2m까지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사진은 동남극 드라이벨리의 빙하.

지구의 온난화

한 때에 부처님께서 박가국 풍수미라기라라는 마을에 배짜갈라술 사슴등산에 계실 때에, 건강한 수행승들이지만 겨울이라 한 커다란 구멍이 뚫린 나무에 불을 지피 추위를 녹이려 했다. 그때에 구멍 가운데 있던 큰 검은 뱀이 열기에 못이겨 뛰쳐나와 불을 지핀 수행승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수행승들은 혼비백산해서 모두 흩어져 도망갔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수행승들이여, 건강한 자들이 불을 지피며 몸을 덥히려 하느냐?" 라고 크게 꾸짖었다. 이후 함부로 불을 지피우는 것은 참회(波逸罪)에 해당하게 되었다.

위 사건은 함부로 불을 지피우지 말라는 것과, 불을 지피면 자연의 보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과 현대문명은 곧 불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 불에 의한 오염이라는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석탄과 석유를 불태움으로써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산품을 생산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소모량보다 점점 많아져서 대기중의 이

산화탄소는 현재 산업혁명 이전보다 25% 이상이 늘어났다. 이렇게 증가된 이산화탄소가 지구 전체의 기온을 상승시킨다.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 일부가 우주공간으로 다시 방출되면서 생겨나는 적절한 지구기온의 균형을 깨뜨리며 이상온실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때문

가중되는 온실효과로 지구·대위지고 있는 것이다. 수십억년동안 안정되었던 지구의 기온은-지나간 간빙기 동안에도 지구 평균 기온은 불과 1℃씩 높아졌다-지금부터 2100년대 말이 되면 평균기온이 2.5~5.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m의 해수면이 상승



이산화탄소·프레온·메탄 가스가 주범 해수면 상승 해일·저지대 침수등 피해

에 지구전체의 기온을 상승시키기는 온실효과가 생겨난다. 물론 이산화탄소 이외에 무분별한 산업활동의 결과로 생겨나는 프레온 가스, 이산화질소, 메탄, 오존 등도 온실효과를 가중시킨다. 특히 프레온가스와 메탄가스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1만2천배 및 20배에 해당된다.

하면 15년 주기로 나타나는 폭풍해일의 피해가 현재 100년에 한번 일어나 초대형 폭풍해일이 가져오는 피해와 맞먹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초대형 폭풍해일을 수반하는 해수면 상승은 세계 경제면적의 1/3과 10억 인구의 생활터전을 빼앗아 갈 것이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가 팽창하고 남북극의 얼음과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에 옮겨지게 된다. 또한 기류와 해류가 변하고 전지구적 생태환경의 변화가 초래되면서 농작물이 감소하는 전지구적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는 연안지역을 따라 발달한 전세계의 모든

도시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특히 큰 피해는 원안제공의 측면에서 별다른 죄가 없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세네갈, 수리남 등의 제3세계 국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인류는 지금 너무나 많은 불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지구라는 우리 삶의 터전에 불을 지피우는 꼴이 되었다. 부처님 당시에 수행승들이 함부로 불을 지피다 감은 뱀의 습격을 받았듯이 달궈지는 지구에서 그 열기는 못이겨 우리를 기습할 공해시대의 검은 뱀은 다름아니라 온실효과에 의한 재앙이다. (한국불교대교주)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김중호씨(30)는 여름휴가를 화순 운주사로 갔었는데 못볼 것을 보고 왔다. 운주사 와불상을 참배하고 있는데 젊은부부가 죽어 올라오니 아이들이 와불상 위에 올라가는 것을 못본채 하는 것이었다. 김씨가 와불상 위에 올라가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중에도 여러명의 어른들과 여학생들도 산등성이를 올라와서는 자연스럽게 와불상위에 앉아 잡담을 나누는 것이었다.

잠시뒤 노수녀가 올라와서 와불상의 발끝으로 가 예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제서야 숙연해 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같은 현상들은 전국의 각 관광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찰예절을 모르는데 원

구경보다 '마음담는 곳' 인식을 사찰도 가을 행락철 앞두고 선도계획 세워야

인 있다. 대부분의 절이 위치한 곳은 경치가 뛰어나고 산수가 수려하여 사람들이 즐겨찾는 공간이 되고 있다. 요즘들어 가족단위의 관광과 문화유적답사가 성행하면서 사찰은 본래의 조용함과 고요함을 잃어가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8백여 진동사찰중에서 50여개 사찰이 관광사찰로 분류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찰은 관광객들의 소음 풍기문란행위등으로 인하여 청정기도도량의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살을 앓고있다. 가을을 맞으며 산사를 찾는 인파가 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관광사찰은 이제 구경가는 사찰이 아니다. 수행도량의 면모를 되살려서 불교를 배우고 인식하는 공간으로 지켜가야한다. 절을 찾을 때는 불자를 스스로도 정숙한 옷차림으로 단정히 하고 스님들의 기도처 출입등을 삼가하며 불교유적을 신앙과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해당사찰도 포교용 책자와 비디오 상영등 불교와 친밀하게 호흡하도록 포교의 적극성을 보여주고 수행도량으로의 위상과 역사적 문화교실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동화사에서 8km쯤 떨어진 갖바위와 갖바위에서 동쪽으로 1km 남짓 골짜기를 내려면 맞은편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선본암도 둘러 수행도량의 정경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02)712-5812

10대 성지 끄리는 부석사 불교신행연 23-24일 답사

소백산 국망봉 절기 불황불종턱에는 천년고찰 부석사가 의연한 자태를 뽐내며 자리해 있다. 3천여명의 문도가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 교세가 널리 퍼졌다는 부석사에는 아직도 그 기운이 곳곳에 배어 있다. 신라시대 창건이후 고려시대에는 전국 10지에 꼽히는 명찰로서 역사의 생생한 발자취를 보여주는 유물이 가득하다. 부석사와 함께 소백산 남단 기슭에 자리한 용문사도 그 당당한 풍모와 고색을 자랑한다. 용문사는 법당인 보광명전을 비롯 대장전, 응향각등 거의 모든 담우들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특히 보물 제145호 대장전은 중앙부후면에 불단을 설치하고, 좌우에 회문식 팔각운장이 세워져 그 안에 장경관을 넣어두고 불자들이 한변씩 밀면서 돌리게 하여 불공을 쌓도록 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 파이란 가을하늘과 함께 흐르는 계곡의 청아함도 함께 만끽할 불교신행연구원의 9월 불교문화여행은 오는 23일~24일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02)587-6613

사명대사 머문 천년고찰 두레 동화사 문화기행

대구 중심부서 20km쯤 떨어진 팔공산 한곳엔 천년고찰이자 조계종 제9교구본사인 동화사가 있다. 두레가 오는 24일 동화사로 문화기행을 떠난다. 지금의 건물은 이조 영조 8년에 중건된 것으로 대웅전을 비롯, 천태각, 봉서루, 천안문 등 규모가 방대하다. 그밖에도 금당암, 비로암 등 속암이 있기도 하다.

"홀로된 노인·장애인 우리 절로 오세요" 거제도 자비마을 대자원 영안스님 본사에 연락

'부모님 은혜는 천지와 같다. 부모를 두 어깨에 모시고 백년동안을 다내면서 갖가지로 공양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잡보장경 제2권>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사장이들을 두고도 관자촌에 누워있는 노인이 있고 탐골공원등 서울의 4개 공원에서 배회하는 노인만도 하루 1천5백여명이나 된다'는 본지 4호 '목어'란의 보도를 보고 경남 거제의 자비마을 대자원 원장 영안스님이 본사에 연락을 해왔다. 스님은 "대자원에 40여개 방사가 있다"며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 1백여명을 받아들여 함께 생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스님들의 노후 기도처로 개방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대자원은 남포당을 마련하여 임종까지 책임지고 있다며 주위의 외로운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있으면 연락을 바라고 있다. (0558)32-7221-3

신행수첩

태화산 남쪽 기슭에 웅장하게 자리잡은 마곡사. 마곡사는 신라 선덕여왕때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개울이 가로지르는 사찰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사찰이다. 사찰내 건물로는 극락교를 사이에 두고 대웅전과 영산전, 천장의 무늬가 아름다운 대광보전, 강당으로 사용하는 흥성루, 요사채인 심검당이 다자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지순례단은 감지은니모범연화경을 소장하고 있는 마곡사 답사에 이어 갑사도 참배할 예정이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02)953-0242

가고, 기계를 가지고 놀면서(게임기) 하루를 사막하게 보낸다. 그렇게 메달라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줄 기회 만들어 주자.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국민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변성기 이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노래를 통해 불성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디션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불교동요와 일반동요 중 1곡으로 한다. (02)725-7527

성지순례를 떠난다. 충북 청원군 구룡산 현암사와 충북 괴산군 환희산 채운사·보타산 각연사로 떠나는 이번 성지순례는 가을 결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뜻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원사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한다. (02)733-5322

노래부르며 부처님 찬탄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어린이들의 사회참여가 눈에 띄게 확대된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 학원으로 내보내게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기계소리(자명종계)를 눈을 떠 기계를 익히려(컴퓨터등) 학원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울음해년 음력 8월은 4년만에 돌아오는 윤달이다. 전통관습에 따르면 윤달에는 하루 삼사를 순례하면서 신심을 돈독히 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성지순례가 행해진다고 한다. 승보종찰 승광사 서울본원인 법원사(즉지 현호)는 오는 29일(음 8.5) 윤 8월에 맞춰 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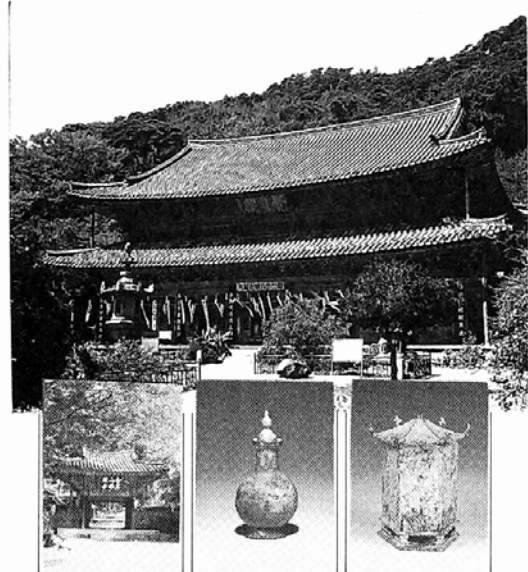


법화경 향기어린 마곡사
보문사 내달 6일 구도의 길
단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국내의 유명한 심산유곡에 있는 고찰은 형형색색의 단풍과 어우러져 신심향양과 단풍속 추억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천년의 신비 화엄사에 출현 부처님사리 및 성보문화재를 찬탄하고 예경합시다

지난 8월 17일 지리산 화엄사에서는 부처님사리를 비롯하여 국보급 성보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성보문화재는 8세기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화재관리국의 중요 석조문화재 보수공사중 화엄사 서 오층석탑(보물 제133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은 석탑의 1층 탑신과 상층기단 내적심부의 원형 홈안에 금동뚜껑이 덮힌 청자 양이병이 발견되었고 그 속에 녹색유리 사리병 및 백색 영롱한 부처님 사리 22과와 신라시대 화엄경의 사경으로 추정되는 종이문지 등 모두 16종 72점의 국보급 성보문화재입니다. 이 성보유물은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천년신비의 귀중한 성보문화재의 출현이라는 점에 그 의의는 참으로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화엄사에서는 9월 24일부터 2천만 불교인의 신심과 원력을 모아 부처님사리 출현을 찬탄예경하고 기도와 발심으로 그 공덕을 함께 회향하기 위한 100일 친견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참배와 동참의 선연으로 우리 모두의 뜻과 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95년 9월
화엄사 주지 국종열 합장



친견대법회

◇기 간: 1995년 9월 24일~12월 31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제일: 1995년 9월 24일 오전 11시
◇장 소: 지리산 화엄사 각형전

알립니다

친견대법회 안내
각 사찰 및 신행단체의 단체참배시 차량집인 및 주차문제, 국립공원 입장권 문제, 친견시간 등의 편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단체참배시에는 사전에 화엄사 종무소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참배 안내

화엄사는 동시 수용인원 500명 정도의 공양 및 방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니 100일 친견대법회 기간중에 기도를 원하시는 불자님이나 신행단체는 화엄사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화엄사 西 오층석탑 부처님사리 친견대법회 봉행